

■ 지방선거 핫코너

전갑길 “초·중생 무상급식 이뤄져야”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7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초·중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초·중등생에 대한 무상 급식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청장은 “현재 학교급식 소요 비용은 지방교육 재정과 학부모 부담금 등으로 채워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무교육 대상자의 급식 비용을 상당부분 부담해야 하고 지방 교육청의 재정 현황을 고려, 정부가 전체 비용의 50~70% 사이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석 “광주역 지하 관통도로 개설을”

이형석 전 청와대 비서관은 7일 광주역 역세권 개발과 관련, “광주시가 준비중인 광역별 역세권 기본계획에 복구와 동구를 연결하는 ‘광주역 지하 관통도로’개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광주역은 오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아시아문화전당 및 국립 5·18묘지 등 5·18민중항쟁 사적지 등과 연계해 개발해야 한다”면서 “관광·문화·비즈니스 복합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치밀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슬럼화되고 있는 역 주변 도시환경에 대한 재정비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 ‘자서전’ 출판기념회 가져

순천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이은 전 해양수산부차관이 6일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저서 ‘깊은 길에 연하여 있다’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서갑원, 주승용, 우윤근 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 시민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전 차관은 저서에서 순천에서 나고 자란 과정과 30여 년의 공직생활 경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한 인연 등을 소개했다. 특히 차관 재직시 부산항과 함께 광양항을 제2의 컨테이너항으로 개발한 것과 2012여수 세계박람회를 유치한 것을 남다른 보람으로 평가했다.

구희승 “순천시장 출마” 공식 선언

구희승 변호사는 7일 “순천을 ‘고요한 생태도시’ ‘산업배후도시’가 아닌 사람이 모여드는 경제적, 문화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순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구 변호사는 “행정·사법고시에 합격해 농림부·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다양한 경력과 이를 통해 이뤄놓은 인적 네트워크와 지식을 바탕으로 순천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hetaemin.com

‘민주당 공천 = 당선’ 후보 5명 각축

■ 영암군수 입지자

김일태 현 군수가 재선 고지를 향해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낸 모양새다. ‘민주당=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탓발인데다, 현재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 후보군은 부각되지 않은 상태여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군정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민주당 후보로는 김 군수 외에 김재원 박준영 전남도지사 정책보좌관, 김원배 민주당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철 대불대 석좌교수, 전동령 전 전남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까지 후보로 거론됐던 강우석(영암 2) 전남도의원, 강우원(영암 1) 전남도의원 등은 군수 선거 대신 도의원 선거로 방향을 틀었다.

김일태 군수는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며 재선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영암 월출산 로프웨이 사업과 대불 산단에 이은 친환경 녹색산단(60만~70만평) 개발사업 등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월출산 기후랜드’ 조성 및 쌀·무화과·한우·고구마 브랜드화 등을 통해 관광·농업 분야 수익 창출 계기를 다진 만큼 단기 도약을 위해서는 군정 전반을 꿰뚫고 있는 자신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김 군수는 높은 지지도·탄탄한 조직력에 현직 프리미엄까지 갖췄다. 27일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 영암군수 입지자

(가나다 순)



“지도도·조직력 탄탄” 김일태 군수 재선 의지에 김재원씨 풍부한 행정경험 앞세워 강력 대항마로

지지기반을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김재원 전남도지사 정책보좌관은 참신성과 박준영 지사를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쌓은 지방자치 경험을 무기로 확실하게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행사장에 참석, 얼굴 알리기에 주력한 뒤 명절이 지난 뒤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서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전략이다. 그는 최근 지지도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대불대 건설공학과 교

수와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을 지내면서 쌓아온 이론과 행정 경험 등을 토대로 군정과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새로운 생명산업으로 지역 개발의 활로를 뚫을 것”이라며 “서부권 명품 신도시 개발 및 월출산을 활용한 은퇴자 마을 조성에도 적극 나서는 등 희망찬 영암의 미래를 개척할 자신이 있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김원배 민주당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08년 영암발전연구소를 세운 뒤 삼호읍과 신북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확실하게 지역 기반을 다져왔다고 보고 군수 공천 경쟁에 힘을 쏟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6일(서울), 다음달 2일(영암)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전남도당 전남국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에서 20여년 활동하면서 쌓아온 중앙 정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공천 경쟁에 나설 태세다.

김재철 대불대 석좌교수도 유력한 군수후보 중 하나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중”이며 “명절 전후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인지도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령 전 전남도의원도 ‘4선 도의원’의 경륜과 정치력을 기반삼아 조직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며 경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 의원은 4선 도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기반을 확실히 다져왔다고 보고있는데다, 본인 스스로 “민주화운동과 노동 운동을 했고 지구단위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라며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① 유선호·박준영 영향력은?

〈지역 국회의원〉 〈전남지사〉

② 김일태 군수 무소속 선회하나

■ 쟁점 & 변수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유선호 국회의원의 의중이 어디로 쏠리지는, 영암이 고향인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영향력이 작용할 것인지 등이 관건이다. 김일태 현 군수의 무소속 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선호 국회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력 군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과 접촉하는 등 지방선거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2년 후 자신의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사전 포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영암에서는 유 의원이 이미 의중을 정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박준영 지사의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암은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와 J프로젝트 등 전남도 핵심 현안이 걸려 있는 지역인 만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현역 vs 새인물’ 11명 대거 출사표

■ 도의원 입지자

영암군은 군수선거보다 도의원 선거 열기가 더 뜨겁다. 현역 도의원들에 맞서 도전장을 낸 입지자들이 9명이나 된다.

제1선거구(영암·금정·덕진·도포·시중·신북)에는 현역 도의원인 강우원 의원과 6명의 도전자가 공천 경쟁에 나설 태세다. 강 의원은 ‘4선’ 도의원을 지낸 인맥과 경륜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반면, 나머지 입지자들은 “새인물이 필요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영주 전 군의원은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일꾼이라며 공천 경쟁에 나섰고, 신명운 전 한국농업경영인협회 중앙회 부회장은 농업전문가임을 내세우며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 손태열 전 영암군 건설과장은 33년간의 공직 경험 등을 강조하며 공천을 신청할 태세다. 유영란 도의원(민중 비례)은 지역구로 전환할 지, 군의원으로 나설 지 고민중이다. 박영배 전 영암군의회 의장, 김중열 전 한농연 영암군연합회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2선거구(삼호·군서·미암·서호·학산)에서는 강우석 현역 도의원에 3명의 입지자가 도전장을

■ 영암 도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강우원(민·88)	전남도의회 의원
	김중열(민·51)	전 한국농업경영인협회 영암군연합회장
	박영배(민·62)	전 영암군의회 의장
	손태열(민·61)	전 영암군 건설과장
	신명운(민·52)	전 한국농업경영인협회 중앙연합회 부회장
2	유영란(민·62)	전남도의회 의원(비례)
	조영주(민·58)	전 영암군의회 의원
	강우석(민·56)	전남도의회 의원
	김경열(민·61)	전 전남도의회 운영전문위원
	김평호(민·60)	전 민주당 전남도당 원내 지원국장
	박세용(민·51)	성화대 겸임교수

내고 공천 경쟁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F1 대회의 차질없는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며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김경열 전 전남도의회 운영전문위원도 삼호읍장 등을 지낸 행정경험을 내세워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평호 전 민주당 전남도당 원내지원국장은 지역내 사회적 약자를 살펴보는 정치를 펼치겠다며 공천 경쟁에 나섰고 박세용 성화대 겸임교수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신원대학교(사)	광주지역(사) (100)	광주교육(사) (100)
수강료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수업기간	2010.3.1(월)~3.31(월)	2010.3.1(월)~3.31(월)	2010.3.1(월)~3.31(월)
수업장소	신원대학교	광주지역(사)	광주교육(사)
수업내용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기 교육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기 교육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기 교육
문의처	신원대학교	광주지역(사)	광주교육(사)

남성 헤어 기능장학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초슬림!!

최소 50만원~

가발

최소 50만원~

귀여운 유행의 인기를 보여주는 영리한 유행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전화 : 062-873-9258, 873-8822
광장 이수재 011-600-9252